

국가AI전략위, 해군·해병대의 AX 가속화를 위한 지역(부산) 거점에 대한 전폭적 투자 당부

- 해군·해병대 AX거점 중심으로 군 도메인(정보, 작전, 군수 등) 전문가와 민간 AI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 AI 탑재 무인체계(UAV, USV, UUV) 전용 해상훈련장 구축 추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4월 8일(수) 오전, 해군작전사령부(부산)에서 해군·해병대 AX 가속화를 위한 고위급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한 군 작전 부대 첫 현장방문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방·안보분과장 심승배, 해군작전사령관 직무대리 중장 곽광섭,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준장 이용태 등 고위급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AI의 발전으로 인한 전쟁양상의 변화와 해군의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최근 전쟁에서 지휘통제체계와 드론을 중심으로 AI가 접목되어 결심과 공격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군도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두 가지 필요한 사항을 당부하였다.

첫째 해군·해병대 AX거점을 중심으로 군 도메인(정보, 작전, 군수 등) 전문가와 민간 AI 전문가가 협업하여 새로운 작전수행 방식과 필요한 무기체계를 기획·개발·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를 검증한 메이븐스마트시스템(MSS)도 군 정보 전문가와 민간 AI전문가가(구글, 팔란티어 등) 협업한 결과임을 예로들며, 혁신적인 군사용 AI를 개발하고,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을 탄생 시키기 위해서는 해군·해병대 AX거점에서 우수한 군 도메인 전문가들이 다수 근무하면서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둘째, 해군·해병대 AX거점을 중심으로 무인체계 전용 해상실험장 구축 및 운영을 당부하였다. 무인체계 핵심은 AI이며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단계를 지속 반복하며 발전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미 해군 중부사의 TF-59 예를 들었다.

※ 무인체계의 AI·전투방식 발전단계

① 혁신적 전투방식 구상 → ② 무인체계용 AI 개발 → ③ 해상실험 및 양질의 데이터 축적 → ④ 무인체계용 AI 및 전투방식 고도화

미 해군의 TF-59는 AI와 무인체계 전담부대로 여러기업들과 협업하여 해상에서 무인체계 실험하면서 AI 및 무인체계 운영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에 우리의 뛰어난 조선해양 및 AI 산업역량을 더하면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무인체계 전용 해상실험장 운영개념도 (출처 : 제미나이)

간담회 참여한 해군의 AI, 무인체계 관계관들과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군·해병대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투자가 기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 차원의 역량을 AX거점에 집중하여 해군·해병대가 영해는 물론 주요 해상교통로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AI 기반 첨단전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끝.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I혁신팀	책임자	팀 장	서영지 (02-2224-4161)
		담당자	해군중령	안재희 (02-2224-4168)